

고령자 주거지원을 위한 주택시설설비결함과 주거만족에 관한 연구 - 전북지역의 노인가구를 중심으로 -

Housing Defects and Housing Satisfaction for Supporting to the Aged - Emphasis on the Jeonbuk Aged Households -

이종혜* 곽인숙**
Lee, Joung Hae Kwak, In-Suk

Abstract

This paper investigates housing defects and housing satisfaction of the aged according to the personal characteristics and their housing environment. Personal interview was made on the 280 senior persons living in Jeonbuk area. Research results are following. Low levels were found in education, self privately-owned property, monthly income. Most of them live in a detached house that is outdated and obsolete. The facility defects of housing were the most serious level in case of the female senior citizen who lives alone. Their house aging was old but had the high deviation among households. Main influencing factors on facility defects of housing were perceived economic status and ownership of house, the next was age of the aged. Main influencing factors on the housing satisfaction were perceived economic status. Housing satisfaction was higher, the better economic level of the aged was, male than female, the less the age was, in case of hot-water usage in bathroom, owner of houses, no difference in floor level, larger storage space of kitchen was. According to the empirical results, we propose the supporting policy of housing safety for the aged in order to reduce the risk and social cost. Especially the rate of population aging, the aged household, and the detached houses are higher in Jeonbuk rural areas than the other area. Housing facility defects of the elder who lives alone and house aging of theirs are serious level. Local government should have supporting system that considers local difference and characteristics of the aged housing.

Keywords : Senior Person, Housing Defects, Housing Satisfaction

주요어 : 고령자, 주택시설설비결함, 주거만족

I. 서론

‘100세 시대’ 도래가 예고되면서 급속하게 고령화되어 가고 있는 한국사회는 가족생활주기에서 노년기의 확대로 노인들의 삶의 문제가 사회의 주요 이슈로 되어가고 있다. 또한 핵가족화와 노인들의 의식변화는 과거의 수동적 삶의 태도에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삶을 살려는 노인들이 빠르게 증가함을 볼 수 있다. 전통적으로 노인부양은 가족들의 책임이라는 틀에서 주택정책의 방향도 노인부양 가구에 치중되어 왔다. 그러나 노인 1-2인으로만 구성된 가구가 노인부양가구에 비해 현격하게 높은 현 시점¹⁾에서는 노인가구주거를 직접 지원하는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

특히 자기가 그 동안 살아왔던 집과 동네에서 계속 살

아가기(aging in place)를 원하는 노인들의 특성에 맞추어 지금까지의 시설 보급 위주의 지원정책에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 대한 지원의 변화가 요구된다. 특히 하루의 대부분을 주택 내에서 지내는 노인에게는 안락한 주택에 대한 요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주거환경의 질적 문제는 주거만족도와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이다(Park, 2011). 노인의 연령이 높아지면서 점차 쇠약해지고, 신체기능의 저하, 보행의 어려움 등이 발생하게 되므로 현재의 주거공간에서는 일상생활의 유지조차 힘들뿐만 아니라 사고발생의 가능성도 높아진다. 따라서 노인을 위한 주거공간은 노인이 자신의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안전하고 안락한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생활공간을 확보, 유지할 수 있도록 사회적인 차원에서 원조해 주는 주택보장이 절실히 요구된다. 노인 개인의 지속적인 활동을 지원해 주고, 안전한 생활공간을

*정회원(주저자), 우석대학교 산업디자인학과 교수, 박사수료

**정회원(교신저자), 우석대학교 실버복지학과 교수, 박사

Corresponding Author: In-Suk, Kwak, Dept. of Senior Welfare, Woosuk. Univ., Samrye-ro 443, Samrye, Jeonbuk, Korea
E-mail: kwak1416@naver.com

1) 2010년 현재 노인 1인으로만 이루어진 가구가 38%, 노인부부만 이루어진 가구가 32.3%로 노인부양가구보다는 노인만으로 이루어진 가구가 많고(통계청, 2011), 더욱 증가할 전망이므로 이들에 대한 지원이 더 절실하다.

제공해줄 수 있는 주택보장은 노인의 독립성, 안정성, 프라이버시를 보장해 주게 된다. 또한 주택의 형태와 위치에 따라 노인의 사회적 관계, 사회활동에의 참여나 노인 복지서비스의 접근 등에 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어 궁극적으로는 노인의 생활만족도의 향상, 삶의 질 향상에 심각하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나 스스로 자신의 생활 근거지이며,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는 기본적인 요건을 갖춘 주택을 마련하기에는 경제적 빈곤의 상태에 있는 노인이 많고, 신체적, 경제적, 사회적 여건의 변화에 따른 주거요구의 충족을 위한 문제해결을 하기에는 노인의 개인적인 능력이나 노력으로는 불가능하므로 노인주택보장과 같은 사회적 차원이 개입이 절실히 요구된다.

2011년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서 제정되었다. 이 법률에서 주거약자란 장애인과 고령자를 의미하고 이들 주거약자에 대한 최저주거기준과 편의시설 설치기준이 설정되고, 국가나 지자체, 한국토지공사,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임대주택에 3%이상을 주거약자용으로 의무건설하도록 하고, 주거약자가 주택 개조시 국민주택기금의 용자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등 65세 이상 고령자를 주택정책의 중요 대상으로 다루게 되었다. 그러나 소득이 낮은 주거약자가 실제 정책을 이용할 가능성이 낮은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국토부에서는 노인주거복지 정책 수립을 위한 노인가구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해오고 있다. 그러나 노인집단은 다른 연령집단에 비해 매우 광범위하고 다양한 연령층, 경제적 수준, 건강상태, 가족구성의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어 세부적인 기초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전반적인 주거실태조사로는 실효성이 있는 주거지원 대책이 마련될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전북지역은 고령화율이 전남을 제외하고는 가장 높은 비율²⁾을 차지하고 있어, 노인가구가 많고, 단독주택이 차지하는 비율도 높다. 송하승(2005)의 연구에 의하면 읍면부의 노인가구의 경우 주거시설이 열악하며, 특히 노인 1인가구의 주거시설수준이 가장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농어촌 지역에는 건축한지 오래된 주택들이 많아, 이에 대한 주거지원대책이 따로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지역적으로 차별화된 상황에 맞춘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지원제도와 시행이 요망된다.

그러나 기존 연구들에서 노인주거정책의 일반적인 지향성을 다룬 연구(Noh & Jang, 2009; Kang, 2009; 박신영, 2002), 노인임차가구(천현숙 & 오민준, 2013)에 관한 연구, 노인주거단지나 노인전용주택에 거주여향, 주거선호에 대한 연구(Kwak, 2011; Kang, 2009; Cho & Lee, 2005), 노인주거시설 공급에 관한 연구(윤주현, 2004) 등으로 노인을 위한 신규 주택의 공급에 관한 연구나 조세혜택, 금융지원 정책의 필요성 등을 주장하는 연구가 많았다. 노인을 위한 주택수리 및 개조에 관한 연구(Kwak, 2009;

이영심, 이상해, 2002; 최재순, 이의정, 2001)가 일부 이루어졌으나 개별 노인가구나 지역적 특성에 따른 지원정책에 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적게 이루어졌다. 이들이 제시한 지원정책은 노인1인가구나 노인부부가구를 위한 것이 아니라 노인부양가구에 대한 것이 대부분이므로 현실적인 실효성이 미약하다. 사회복지적 차원에서의 노인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환경수준의 평가와 주거보장대책에 대한 연구가 요망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북지역의 노인을 대상으로 노인의 개인적 특성과 주택 특성, 주택시설설비결함을 객관적차원에서 측정하여 노인의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한 실태조사를 기초로 전북지역 노인의 주거보장을 위한 주거지원정책에 대한 제언을 위한 기초조사의 성격을 갖는다.

II. 선행연구 고찰

1. 노인주거지원정책

고령화는 노인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의 약화와 함께 경제력의 약화를 수반하게 되며, 이러한 환경은 쉽게 개선될 수 어렵기 때문에 일반 시장경제와는 구분되는 정책이 필요하며, 인간다운 존엄성을 유지하면 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노인가구의 주거수준은 일반가구에 비교할 때 열악하며, 고령화의 급진전에 따라 노인가구의 증대, 가족부양의 퇴조로 인한 노인단독가구나 노인부부가구의 증대 등으로 노인주거문제가 향후 중요한 사회문제로 대두될 우려가 있다. 이에 대비하여 종합적인 노인주거정책의 수립이 시급하다. 자가를 소유하고 있는 노인은 주택관리능력의 부족으로 주택부실화가 가속화될 우려가 있으며, 임차거주 노인은 집주인의 임대 제공 기피로 주거불안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인을 위한 종합적인 노인주거정책의 부재가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윤주현, 강미나, 송하승, 2004). 노인주택을 취급하는 정부부서가 주택정책은 건설교통부에서, 복지정책은 보건복지부에서 관장하고 있어 관할부서가 이원화 되어 있으므로 종합적인 노인주거정책을 다루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노인주택건설에 대한 별도의 배려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공공임대주택 배분시 노인가구에 대한 우선분양혜택이 주어지고 있으나, 노인주거정책이라기보다는 사회취약계층 주거정책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다. 반면 노인복지주택은 노인복지시설로 구분되어 보건복지부의 노인복지정책의 일환으로 다루어지고 있어 주택법의 주택이라기보다는 복지시설로 구분되어 각종 기금의 활용 및 주택건설에 대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노인주거정책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며, 노인주거정책에 대한 법적체계화와 효율화가 필요하며, 노인주거시설에 대한 조세측면의 혜택과 폭넓은 금융지원책 등이 필요하다고 하였다(Noh & Jang, 2009; Kang, 2009).

노인편의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고, 주거비 부담이 과다하지 않으면서 의료 및 생활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2) 2012년 고령화율은 전남지역이 19.19%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전북지역이 16.21%였다(통계청).

주택이 거의 없다. 또한 노인들이 자신의 소득계층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노인주택 재고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영구임대주택이나 국민임대주택에 입주 가능한 경우는 최저소득계층의 노인에만 해당되며, 정책지원 없이 건설되는 노인복지주택은 일반주택의 건설비용보다 높아 거주노인의 임대료 부담이 높아 고소득계층만이 입주 가능한 실정이다. 따라서 대다수 노인이 속해 있는 중산층이 입주 가능한 노인주택이 공급되지 않고 있다(윤주현 외, 2004).

2011년 말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서 통과되었으나 이는 노인만을 위한 주거 지원으로 보기 어려우며, 주거약자를 위한 지원계획수립이라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한 시작이라고 할 수 있으나 이 법이 현실적으로 노인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기여할 수 있을지에 대한 실효성은 의문시된다. 예를 들면 주거약자 주택개조시 국민주택기금의 융자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실제 소득수준이 낮은 주거약자가 이 정책을 이용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것이 문제점이다.

2013년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노주거지원정책은 크게 분양주택 공급, 임대주택 공급, 전세 및 구입자금 지원 등의 금융지원, 주택 및 주거단지 내 편의시설 설치 지원 등을 하고 있다(천현숙, 오민준, 2013). 분양주택 공급시 65세 이상 노부모를 부양하는 가구에 가점을 부여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노인단독가구나 노인부부가구의 비율이 가장 높고, 계속 증가할 추세에 있으므로 이는 현실적으로 노인의 주거지원의 실효성이 의문시된다. 임대주택공급 시 노인가구에 일정비율을 의무적으로 공급하거나 우선적으로 공급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 역시 주거 수요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주택자금의 지원에서도 전세자금의 경우 고령자 및 노부모부양자에 우대조건을 적용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노인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구입자금 지원상품은 없으며, 자금지원 외 우대조건도 없다. 보금자리주택을 신규공급하거나 개조 시 고령자를 위한 편의시설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기존의 주택에서 거주하는 노인가구에 대한 개조지원이 미흡한 실정이다. 대부분의 노인주거지원정책이 노인부양가구에 대한 것으로 노인단독가구가 과반수 이상인 현실에서는 실효성이 의문시된다.

외국의 주거지원정책은 매우 다양하여 영국의 경우 지역사회의 노인들이 자신의 집에서 다양한 지역사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보호주택에 대한 지원 정책으로 비영리민간기관이 고령자주택을 건설할 경우 보조금 지불, 임대료 보조 등이 가능하다. 영국의 보호주택은 정부에 의해 계획적으로 도입되었다기 보다는 고령자들의 필요에 의해서 자연발생적으로 건설되어 주택의 유형이나 운영형태는 매우 다양하다. 보호주택은 지방자치단체의 거택 서비스망을 이용하면서 관리인과 경비장치가 있는 소규모의 집합주택으로서 시설이 아닌 주택의 개념으로 접근하였기 때문에 그 보급이 급

속히 확산되었다(Hong et al., 2006). 일본의 ‘고령자 거주 안정확보에 관한 법률(2001)’에서는 고령자를 위한 주택시책(국토건설성)과 복지시책(후생성) 간의 상호연계를 통해 고령자의 일상생활을 지원하고 있다.

스웨덴과 같은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은 1980년 이전까지는 노인이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없는 경우 주거와 서비스가 함께 제공되는 시설 입주가 우선이었으나, 법 개정 이후 서비스가 사람을 찾아가는 개념으로 변화되어 되도록 자신의 집에서 자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가정봉사원 서비스나 건강방문자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스웨덴의 노인들은 복지 서비스를 통해 재정적인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으며 거주하기에 적합한 주택에서 지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요구에 맞는 보호와 도움을 요청하여 제공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 서비스의 수혜자인 노인은 선택의 자유가 있어서 거주 및 보호형태, 의사결정 등을 할 수 있다(Lee, S, 2011).

이상과 같은 연구들을 종합해 보면 노인주거복지향상을 위한 다양한 대안의 모색이 요구된다. 주거환경의 개선이 신규주택에 치중하지 않고 기존의 주택에 대해서도 확대되어야 할 것이며, 노인부양가구 위주가 아닌 현재 가장 많은 독거노인가구에 대한 지원으로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임차가구와 같은 경우 주거환경개선보다는 주거비의 부담을 완화시켜 줄 수 있는 주거비지원과 같이 다양한 방법으로 노인주거환경의 질 향상을 모색해야 될 것이다.

2. 노인가구의 주택시설설비결합

주택시설설비결합은 주거상태를 규범과 비교하여 주관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할 때 발생하며(Kwak, 2011), 주택시설설비결합으로 인해 느끼는 불만족에 따라 이주와 개량 등의 주거지출을 위한 주거행동이 일어나게 된다. 그러나 신체적, 경제력이 약한 노인에게는 주거긴장, 주거불만족의 주거문제가 발생하여도 해결방법이 극히 소극적이거나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노인들은 대부분 현재 집에서 지속적으로 거주하기를 원하며, 건강이 나빠졌을 때도 현재의 집에서 거주하기를 희망하고 있다(Kwak, 2009). 건강한 노인단독가구의 경우 주택에서 보내는 시간이 평균 20시간 이상(건설교통부·한국주거학회, 2005)으로 주거환경이 노인의 삶에 중요함을 알 수 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신체적, 정신적·심리적, 사회적·경제적 변화로 주택에 대한 의존성은 높아지며 주거환경에 의한 영향력도 증대된다.

노인가구중 독거노인가구는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비율이 25.4%로 가장 높고, 노인부부가구는 11.2%로 노인을 포함한 가구중 가장 낮게 나타났다. 노인의 주택은 최저주거기준에서 면적미달보다는 거주기간이 길어져 시설 노후화로 인한 시설미달이 높으며, 특히 화장실과 목욕시설미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천현숙·오민준, 2013). 노인주거의 자가율은 일반주거에 비해 높으나(천현숙·오민준 2013; 송하승, 2005),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가

구의 비율이 높고, 집안에서 ‘미끄러운 바닥’이나 ‘울퉁불퉁한 바닥’, ‘어두운 조명’으로 인해 낙상사고를 경험하는 비율이 높고 특히 혼자 사는 노인가구의 낙상경험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어촌 노인주택일수록 최저주거기준 미달이 더욱 심각한 양상을 보인다(장종익, 2011).

주택 거주기간도 13.9년으로 일반가구에 비해 길며 이는 자가율과 관계가 깊다(천현숙 & 오민준, 2013). 긴 거주기간동안 개보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많아 열악한 주거수준임을 짐작할 수 있다. 특히 농어촌 노인독립가구의 주택은 50년이 경과된 노후주택이 많고 가구주 연령이 높을수록 오래된 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며 재래식 화장실, 온수목욕탕 미비, 화재 및 붕괴의 위험, 단열설비 부족 등으로 겨울철난방비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나,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키거나 추위로 인한 안전사고의 위험에 노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장종익, 2011; 송하승, 2005).

노인들은 거실·침실 등의 분리와 계단, 난방, 온수시설, 부엌, 화장실·욕실시설 등의 개선을 요구하고 있으며 비록 설비를 갖추어도 시설(부엌, 욕실)의 마감재와 높이, 넓이, 폭 및 조작방법이 노인의 신체치수와 적합하지 않은 디자인상의 문제로 인하여 사용에 많은 불편을 주고 있으며 주거환경에서 요인별 중요도는 안전성, 쾌적성, 시설물 안전성, 편의시설접근성, 경제성 등의 순위로 나타났다(Kim, 2009).

노인 낙상사고의 55%가 집안 내(한국소비자보호원, 1998)에서 일어나는 것을 감안할 때 특히 노인주거에서의 안전은 매우 중요하다. 주택 내에서 낙상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곳으로는 침실과 방>욕실>거실>주방>현관>베란다 순이었으며 미끄러운 바닥, 높은 문지방, 바닥의 장애물, 어두운 조명 등의 환경적 요인에 의한다. 노인의 낙상사고율이 노인전체의 15.3%(GNB 경북방송, 2013)이며 나이가 들수록 낙상발생률도 높아져 65세 이상 낙상 발생률은 서너명에 한 명 꼴이며, 70세에선 35%, 80세 이상 노인은 절반 이상이 낙상을 경험하고, 낙상의 경험이 있는 노인의 경우 낙상발생이 더 높아져 첫 낙상을 입은 다음 해에 낙상의 발병률이 60~70%에 달한다.

노인의 낙상사고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미끄럽지 않은 마감재료와 문지방 없애기, 필요한 곳에 손잡이를 설치, 주변을 깨끗이 정리하기, 자주 사용하는 물건은 낮은 곳에 둘 것, 밝되 눈부심을 주지 않는 조명시설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송하승, 2005). 노인의 낙상은 골절 등의 부상과 합병증을 가져오기 쉬우며 노인사망의 직·간접적인 원인이 되므로 낙상사고를 줄이기 위한 환경적 요인을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다.

노인에게 중요시 되는 주거환경의 물리적 요소는 단차, 미끄럼, 충돌, 범피, 가스누출에 대한 안전성과 부엌, 욕실, 화장실 설비의 사용, 방문, 창문의 개폐, 유지관리의 편리성, 냉난방 온도와 온수조절의 편리성, 통로, 계단 손잡이와 현관진입 경사로 구비 및 집의 크기와 관련된 개

인공간, 욕실공간, 수납공간, 녹지공간의 확보, 욕실공간의 근접 그밖에 충분한 일조량, 밝은 조명, 차음, 맑은 공기 등이 있다(Kim, 2009).

2006년부터 마련된 노인가구의 주택개조기준 이외에도 모든 노인주거계획시 노인의 특성상 일반주거와 다른 최저주거기준 및 최소 안전기준이 마련되어(Kwak, 2011), 노인들의 안전사고를 줄일 수 있도록 기준제정과 함께 규제기준과 이를 유도하는 지원책 등의 제도적 장치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또한 기억력감퇴(가스, 수도 잠금 등), 감각능력(냄새, 시력)과 신체적 약화(서 있기 어려움, 어지러움, 악력저하), 불면증, 소음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스템적 방법이 요구된다(Shin et al., 2012).

많은 연구들에서 노인의 개인적 특성이 주택시설설비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노인의 주택시설설비결함 수준이 남성보다 높았으며(Kwak, 2011; 이상권, 2002; 이연숙 외, 1999), 노인의 연령이 많을수록,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주택시설설비결함 수준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Kwak, 1998; Kim & Seo, 1987). 배우자가 없는 경우 주택시설설비결함이 높았으며, 특히 독거노인의 경우 주거실태도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천현숙·오민준, 2013; 장종익, 2011). 가계생활비가 낮은 집단일수록 주택시설설비결함의 수준이 높다(Kwak, 2011).

노인가구의 주택 특성도 주택시설설비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독주택이 아파트보다 주택시설설비결함수준이 높아 아파트에 거주하는 경우 주거불만족이 낮았다(Kim & Seo, 1987).

임차가구의 경우 주택시설설비결함의 수준이 높았다(Kwak, 2011; 이상권, 2002; Choi, 2000; Kwak, 1998; 이경희 외 1991; Kim & Seo, 1987). 강원도 지역의 주택에 대한 연구(Kim, 2009)에서는 단독주택의 경우 건축경과년수가 20년 이상 된 노후주택이 다수를 차지할 뿐만 아니라, 군지역의 경우에도 주택 재고의 30%가 노후주택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노후주택은 주거환경의 수준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주거환경의 물리적 특성이 고령자의 신체적 상황과도 맞지 않아 주택안전 사고 등으로 이어질 우려가 높다. 건축경년이 20년 이상인 경우 주택시설설비결함이 높았다(Kwak, 2011).

이들 주택시설설비결함의 특성은 신체적 능력이 저하된 노년기에 주택내의 사고와 연결될 수 있는 심각한 결함들이며, 많은 비용이 들지 않는 주거환경의 개선을 통해 단기적으로는 노인의 안전사고 방지를 통해 의료비 감소와 장기적으로는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고발생으로 인한 사회적 부양비용의 감소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특히 많은 노인가구가 아파트보다는 단독주택에 거주하고 있고 단독주택의 다양한 주택 수준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병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노인주거에 대한 실태파악과 관리에 대한 기초조사가 정기적으로 이루어져 정책에 고려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3. 노인가구의 주거만족

주거만족이란 생활하고 있는 주택에 대한 거주자의 주거욕구가 충족되는 정도에 대한 주관적 평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주거조건들에 대한 만족과 불만족의 상태이며 거주자가 생활하고 있는 주택에 대한 긍정적·부정적 느낌을 의미한다(Morris & Winter, 1978). 많은 선행연구가 주거환경의 평가를 위하여 물리적 관점에서의 접근방법과 심리 사회적 관점에서의 접근방법인 주거만족도를 활용하고 있다. 주거만족은 이상적인 주거욕구와 현재의 주거환경에 대한 긍정적 혹은 부정적 반응으로 측정된다. 1980년대부터 등장한 주거만족에 관한 많은 연구들은 주거환경의 질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주거환경만족도를 사용하고 있다.

노인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집에서 보내므로 주거는 노인의 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노인에게 주거는 보호와 안락의 의미뿐만 아니라 이웃환경과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적 관계를 형성한다는 사회적 의미도 지닌다. 따라서 노인의 일상생활이 이루어지는 주거환경의 조건이 주거만족도를 결정하며 삶의 만족도에도 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매개변수로 작용한다(Park, 2011). 노인들은 자신의 주거환경에 만족할수록 삶에 대한 만족도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이 생활하는 주택의 형태와 질, 집의 위치는 노인의 정체감, 독립성, 안정성, 프라이버시, 사회적 관계 및 활동에의 참여, 노인복지서비스의 접근 등 다양한 측면에 영향을 미치며, 나아가서는 노인 생활의 전반적인 만족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Kwak, 2011; Park, 2011; Kim, 2009).

많은 연구들에서 노인의 개인적 특성이 주거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이 여성보다 현재의 주거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Kwak, 2011; 이상권, 2002; 이연숙 외, 1999), Kwak(1998)의 연구에서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의 연령이 많을수록, 교육 수준이 낮을수록 주택시설설비결합 수준은 높았으나, 주거만족에는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상권, 2002; Kwak, 1998; Kim & Seo, 1987). 배우자가 있는 노인이 주거만족도가 높았으며, 노인부부가구는 자가보유율이 높고 보유자산액도 많으나 독거노인가구들은 자산이나 소득수준이 낮고 주거실태도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천현숙·오민준, 2013; 장종익, 2011). 이는 배우자유무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기 보다는 가구구성이나 가족형태, 가구수, 가족구성원간의 관계(이연숙 외, 1999; Kwak, 1998; 이경희 외 1991)가 주거만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월평균 가계생활비가 많고, 경제적 어려움이 덜 할수록 주거만족이 높다(Kwak, 2011; 이연숙 외, 1999; Choi, 2000; Kwak, 1998). 건강상태가 양호하며, 노인이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하며, 자신의 주택을 돌 볼 수 있을 때(이연숙 외, 1999; Kwak, 1998) 주거만족이 높았으나, Kim & Seo(1987)의 조사에서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가구의 주택 특성도 주거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아파트에 거주하는 경우 아파트보다 주거불만족이 낮았으나 주거만족에는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Kim & Seo, 1987). 자가소유 노인일수록 임차가구 노인보다 주거만족의 수준이 높았다(Kwak, 2011; 이상권, 2002; Choi, 2000; Kwak, 1998; 이경희 외 1991; Kim & Seo, 1987). 건축경년이 20년 이상인 경우 주택시설설비결합이 높으나, 주거만족 수준에는 유의적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동일한 주거지에서 오래 살수록 주택유형이나 시설설비와 같은 물리적 환경에 의해 주거만족이 영향을 받기보다는 사회적 관계나 근린생활시설의 이용 편리 등이 주거만족에 더 많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Kwak, 2011; Kim, 2009; 이상권, 2002; 이연숙 외, 1999).

선행연구의 결과들을 종합해보면 주택시설설비결합이 높을수록 주거만족이 낮고 주택시설설비결합이 낮을수록 주거만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주택시설설비결합과 주거만족은 높은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노인들의 경우 대체적으로 주택시설설비결합보다는 주거만족을 높게 평가하는 경향(positivity discrepancy)을 보인다(Kwak, 2011).

거주노인들이 주관적으로 인지하여 평가하는 주거만족도는 동일한 환경에서도 거주자의 요구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Kim, 2009). 주택시설설비결합이 반드시 주거불만족으로 표출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은 노인주거연구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사항이다. 노인들의 aging in place 특성상 현재의 주택시설설비결합이 높을지라도 대략 만족하는 주거에착심이 특히 강하므로 이러한 특성을 감안하여 일반가구의 주택시설설비결합이나 주거만족과는 다른 접근이 요구된다(이연숙 외, 1999; Lee, 1993). 따라서 거주자의 특성에 따라 달리 평가되는 주거만족도의 결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거주자들의 주관적인 태도에 대한 측정만이 아닌 거주자에게 적합한 객관적인 조건에 대한 파악과 병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노인주거만족에 대한 연구는 노인주거시설에 관한 연구에 집중되었으나 최근 들어 노인단독가구나 노인부부가구의 증가와 함께 노인주택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지고 있다(Kwak, 2011; Park, 2011; Kim, 2009). 노인들의 주거만족을 위해서는 서비스 환경, 사회적 환경, 물리적 환경 등에 대한 다양한 접근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안전한 주거환경은 노인생활의 질과 주거만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 작용하고 있다(Kwak, 2011).

기존의 노인주거 관련 연구들에서는 노인을 하나의 집단으로 간주한 연구가 주로 이루어져 사회경제적 수준뿐만 아니라 건강상태나 상황이 상이한 집단이므로 이들 다양한 노인집단에 대한 연구가 절실하다. 즉 노인을 대상으로 한 주거만족이나 주거결합에 관련되어 주택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실제적이며, 정책적 함의가 가능한 결과를 도출해야 하는데, 선행연구에서는 노인을 하나의 집단으로 보고 그 결과를 해석하고 있어 현실적인 주거지원이 어려운 실정이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문제

지난 2011년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주거약자인 65세 이상 노인도 주거실태조사와 주거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노인의 경우 전반적인 주거실태조사의 방법으로는 실효성 있는 주거지원대책이 마련될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노인의 개인적 특성과 주택특성을 동시에 고려한 세부적인 실태조사를 기초로 고령자 주거지원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성에 따른 기초조사의 성격을 가진다.

본 연구를 위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노인이 살고 있는 주택의 주택시설설비결함 수준과 주거만족의 수준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노인의 주택시설설비결함의 수준은 개인적 특성과 주택특성에 따라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

<연구문제 3> 노인의 주거만족은 개인적 특성과 주택특성, 주택시설설비결함 특성에 따라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

<연구문제 4> 노인의 주거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특성과 주택특성, 주택시설설비결함 특성의 상대적인 영향력은 어떠한가?

2. 변수의 구성 및 측정도구

1) 독립변수

(1) 노인가구의 개인적 특성

노인가구의 주택시설설비결함과 주거만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어지는 개인적 특성 변수로 성별, 연령, 교육수준, 배우자유무, 월평균가계소득, 주관적 경제상태, 질병보유(객관적 건강상태), 주관적 건강상태 등을 선정하였다.

(2) 노인가구의 주택특성

주택특성 요인으로는 주택유형, 주택소유, 주택의 규모, 주택의 건축경년 등을 선정 조사하였다.

2) 종속변수

종속변수인 주택시설설비결함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물리적 상황으로 안전성, 편리성, 접근성 등의 측면에서 9개 항목을 선정하여 측정하였다. 10개 항목의 내용은 생활공간의 바닥단차, 거실의 조명, 화재탐지기, 욕실의 수도사용 편리성, 실내공간의 바닥 미끄럼, 욕실바닥 미끄럼, 욕실의 동절기 사용, 욕실에서 운수 사용, 부엌바닥의 미끄럼, 부엌의 수납공간의 내용을 측정하였다.

주거만족은 전반적인 주거환경에 대한 정서적 반응으로 전반적인 주택에 대한 만족도, 주택시설설비에 대한 편리성에 대한 만족도, 주거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를 평가한 3개 항목을 선정 측정하였다.

3. 조사대상 및 조사기간

조사대상지역은 전북의 중소도시와 읍면의 농촌지역을

모두 포함하였으며, 65세 이상 85세 이하의 노인 300명을 조사하였다. 질문지에 의거하여 1대 1 면담에 의한 조사로 진행하였으며,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노인은 제외하였으며, 부실 응답이 우려되는 응답자를 제외한 280명을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조사기간은 2010년 12월에 예비조사를 거쳐 일부 문항을 수정한 후 2011년 3월부터 4월까지 노인의 거주지를 중심으로 면담에 의해 노인의 개인적 특성과 주택 특성, 주택시설설비결함 요인과 전반적 주거만족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주택시설설비결함 요인은 조사자의 현장 확인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4. 자료의 분석방법

자료의 분석은 SPSS/Win 20.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 백분율, 평균을 통해 파악하였고, 노인이 거주하는 주택의 주택시설설비결함의 수준과 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인적 특성과 주택특성을 고려한 차이를 살펴보았다. 전체 노인가구의 주택시설설비결함과 주거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규명하기 위하여 종속변수를 노인가구의 주택시설설비결함과 주거만족으로 하는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개인적 특성으로는 성별은 남성41.1%, 여성 58.9%로 여성이 약간 더 많이 분포되었다<Table 1>. 이는 2011년 현재 65-69세 노인인구의 성비가 남성:여성=1:1.16, 80세 이상 노인 남성:여성=1:2.28로 여성의 비율이 높으므로 조사대상의 성비는 적절한 것으로 사료된다. 연령은 65세-85세 미만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75세 이상이 37.5%로 가장 많았으며, 70-74세가 32.5%, 65-69세가 30%였으며, 72.47세였다. 교육수준은 초등학교 졸업이 36.4%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무학이 25.0%, 중학교졸업이 19.3%, 고등학교졸업이 12.5%로 교육수준이 도시지역의 노인들보다 낮은 편이다. 배우자가 없는 경우는 54.7%로 절반보다 약간 많았으며, 가족과 동거하고 있는 경우는 61.4%였으며, 홀로 사는 독거노인의 비율이 38.6%였다. 주관적 경제상태에 대한 인식은 자신을 중하류층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가장 높아 전체의 34.6%였으며, 다음으로는 하층이 29.3%, 중류층이 28.9%, 중상류층은 7.2%로 전반적으로 경제수준을 낮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가계소득은 169.2만원, 월평균 가계생활비는 104.51만원으로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³⁾보다 매우 낮은 수준이었으나 노인간 편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

3) 2010년 도시근로자가구 월소득 평균 400만원, 월평균 321만원 (<http://www.kostat.go.kr/>)

Table 1. Characteristics of Respondents

		f	%
Sex	Male	115	41.1
	Female	165	58.9
Age	65-69	84	30.0
	70-74	91	32.5
	Above 75	105	37.5
Education	Under elementary school	70	25.0
	Under middle school	102	36.4
	Under high school	54	19.3
	High school graduation	35	12.5
	Above college graduation	19	6.8
Spouse	Spouseless	153	54.7
	Spouse	127	45.3
Living type 1	Living with children	172	61.4
	Living alone	108	38.6
Economic status	Low	82	29.3
	Middle-lower	97	34.6
	Middle	81	28.9
	Middle-upper	20	7.2
		M	SD
Age		72.47	4.99
Monthly household income (10 thousand Won)		169.2	183.57
Monthly household expenditure (10 thousand Won)		104.51	91.39
Number of of existing disease		2.42	1.48
Perceived health status (5 point scale)		2.95	2.97

Table 2. Characteristics of Respondent's House

		f	%
House type	Detached/Multi-household	184	65.7
	Apartment	96	34.3
House ownership	Owner	246	87.9
	Rent	34	12.1
		M	SD
Scale of houses (pyeong)		21.04	12.53
House aging (year)		23.15	14.68

타났다. 노인 1인당 현재 앓고 있는 질병의 숫자는 평균 2.42개로 관절염이 61.2%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는 고혈압, 치과질환의 순이었다. 주관적 건강상태는 5점 만점에 평균 2.95점으로 연령이 적은 경우 비교적 좋은 건강상태라고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의 주택 특성<Table 2>은 단독주택이 65.7%로 절반이 넘었으며, 다음으로는 아파트가 34.7%였는데 이는 조사지역이 농촌지역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주택의 소유는 자가인 경우가 87.9%로 전국 평균과 유사한 분포를 보이고 있다. 주택의 규모는 평균 21.04평으로 비교적 넓지만 주택의 질적 측면에서는 가구당 편차가 컸다. 주택의 건축경년은 평균 23.15년으로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에서 노인주택의 현주택거주기간이 평균 15-18년인 것과 비교하면 전북지역 노인들의 거주기간이 더 긴 것을 알 수 있다.

2) 노인 가구의 주택시설설비결함 수준과 주거만족도

주택시설설비결함의 요소들은 조사자가 직접 주택의 현재 물리적 상태를 위협의 정도나 불편의 정도를 5점 척

Table 3. Housing Defect of the Aged House

Housing Defect	M	SD
Gas and fire detectors in house interior	3.225	1.478
Difference of floor-level between front door and living room space	3.191	1.603
Slipperiness of bathroom floor	2.617	1.375
Bathroom using in Winter	2.610	1.485
Slipperiness of interior living floor	2.349	1.334
Lighting of living room, front door and entrance	2.101	1.083
Lack of kitchen storage space	2.050	1.273
Convenience in bathroom water usage	1.975	1.172
Slippiness of kitchen floor	1.762	.967
Hot-water usage in bathroom	1.604	1.003
Sum (50)	23.484	12.971

Table 4. Housing Satisfaction of the Aged

	M	SD
Housing satisfaction	3.556	.865
Convenience in housing facility equipment	2.244	.810
Satisfaction of housing environment	3.482	.657
Sum (15)	9.282	2.332

도 10개 문항으로 측정된 결과<Table 3> 가장 결함이 심각한 요소는 주택 내부에 가스 및 화재 탐지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3.225점)이었으며, 가장 결함이 낮은 요소는 욕실의 온수사용이었다.

그러나 주택에 화재탐지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주택이 많은 현실은 화재와 같은 주택내 사고발생시 대처능력이 떨어지는 노인에게 매우 위험한 환경임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는 현관이나 실내에서 1.5 cm 이상의 단차가 있는 것(3.191점)으로 이는 주택내 노인의 사고유발 가능성⁴⁾이 높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는 욕실 바닥의 미끄러움에 대한 위험(2.617점)으로 이는 노인의 주택내 사고 중 발생 빈도가 높은 장소⁵⁾이므로 욕실바닥에 미끄럼방지 마감을 통해 노인에게 안전한 환경으로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다. 욕실의 겨울철 사용의 어려움(난방 안됨)에 대한 것은 2.610점으로 주로 여름철에 사용되며, 추운 겨울철에는 사용이 어려워 외출이 어려운 노인에게 더욱 불편함을 주는 환경이 되고 있다. 거실 등 생활공간의 바닥이 미끄러움(2.349점), 거실, 현관, 출입구 등의 조명(2.101점), 부엌 수납공간의 부족(2.050점), 욕실 수도전의 사용 편리성(1.975점)에 대한 불편은 비교적 최근에 지어진 주택이나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유니버설 디자인이 적용되어 사용하기에 편리하나, 주택의 건축경년이 오래된 주택의 경우는 불편한 수준이 높았다. 부엌 바닥의 미끄러움(1.762점), 욕실에서의 온수사용(1.604점)으로 조사되었다.

4) 노인의 사고발생장소는 출입구(대문이나 현관)에서의 사고가 가장 많았다(Kwak, 2009)

5) Kwak, In-Suk (2009), Hong, Hyung-Ock (2005)

Table 5-1. Housing Defect Level by Personal Factors-I

		Fire detector		Difference of floor level	Slipperiness of bathroom floor	Bathroom using in Winter	Slipperiness of interior living room
		N	M	M	M	M	M
Living type -Income	Living alone-below 170	93	3.72 A	3.47 A	2.65 A	2.97 A	2.53 A
	Living alone-above 171	15	2.40 C	2.73 B	1.53 B	2.60 AB	2.41 B
	Living with children-below 170	88	3.34 AB	3.28 AB	2.77 A	2.72 AB	2.40 B
	Living with children-above 171	84	2.77 BC	2.76 B	2.29 A	2.05 B	1.96 B
		F	6.607***	3.816**	4.920**	6.353**	9.515***
Sex-Living style	Female-living with children	87	2.85 BC	2.14 BC	2.61	2.41 B	2.23 B
	Female-living alone	78	3.85 A	2.87 A	2.62	3.03 A	2.98 A
	Male-living with children	85	3.28 AB	2.28 B	2.46	2.36 B	2.01 B
	Male-living alone	30	2.63 C	1.67 C	2.00	2.64 AB	1.97 B
		F	7.254***	7.957***	N.S.	3.424*	7.791***
Income- Houseaging	Below 170-20 year	83	3.17 A	3.20 A	2.51 AB	2.68 A	2.00 A
	Above 171-20 year	71	1.34 B	2.55 B	2.07 B	1.89 B	1.71 B
	Below 170-21 year	98	3.76 A	3.53 A	2.88 A	2.99 A	2.71 A
	Above 171-21 year	28	3.21 A	3.39 A	2.43 AB	2.75 A	2.34 A
		F	8.112***	5.967***	5.085***	8.585***	7.915***
Income- House type	Below 170-detached house	137	3.83 A	3.38 A	2.71 A	3.07 A	2.83 A
	Above 171-detached house	47	3.82 A	3.38 A	2.32 AB	2.87 A	2.04 B
	Below 170-apartment	44	2.41 B	3.39 A	2.70 A	2.14 B	1.78 B
	Above 171-apartment	52	1.62 C	2.19 B	2.04 B	1.46 C	1.40 B
		F	36.175***	9.094***	3.752**	20.477***	8.039***
House type -Sex	Detached house-female	106	3.92 A	2.76 A	2.76	3.25 A	2.75 A
	Apartment-female	59	2.08 B	1.88 B	2.42	1.71 C	1.62 B
	Detached house-male	78	3.73 A	2.21 B	2.40	2.71 B	2.13 B
	Apartment-male	37	1.81 B	1.95 B	2.22	1.86 C	1.77 B
		F	33.709***	4.716***	N.S.	20.894***	10.004***
Income- Sex	Below 170-female	117	3.58 A	3.38 A	2.82 A	3.09 A	2.86 A
	Above 171-female	48	2.50 C	2.58 B	2.21 B	1.74 C	1.84 B
	Below 170-male	64	3.31 AB	3.39 A	2.50 AB	2.41 B	2.21 B
	Above 171-male	51	2.86 BC	2.92 AB	2.14 B	2.47 B	2.01 B
		F	5.543***	3.998**	4.222**	10.178***	8.206***
House aging -Sex	Below 20 year-female	85	2.76 B	2.46 B	2.22 B	2.13 B	1.97 B
	Above 21 year-female	80	3.80 A	3.87 A	3.09 A	3.31 A	2.83 A
	Below 20 year-male	69	2.96 B	3.45 A	2.41 B	2.54 B	2.37 B
	Above 21 year-male	46	3.35 AB	2.78 B	2.34 B	2.38 B	2.17 B
		F	5.902***	15.315***	7.236***	10.855***	9.001***

*p< .05 **p< .01 ***p< .001
N.S.; not significant

이와 같이 노인의 현재 물리적 주거환경은 주택의 종류나 건축연도 등에 따라 매우 편차가 크며, 건축한지 오래된 주택의 경우 시설설비 수준이 낮을 뿐만 아니라 바닥의 단차와 미끄러움 등은 노인에게 매우 위험한 요소로 판단되며, 이에 대한 시급한 개선⁶⁾이 요망된다.

주택시설설비결함의 총합계는 평균 23.484점 이었으나 최저 10점부터 최고 46점까지 다양한 분포를 보였으며, 최근에 지어진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는 결함의 점수가 낮고 건축한지 오래된 단독주택의 경우는 주택시설설비결함의 수준이 매우 높았다.

6) 노인이 생활하기 편하도록 주택을 개조하는 환경적 지원은 일상생활동작 능력이 떨어지는 노인들이 독립적인 노후생활을 최대한 연장하는 동시에 '사회적 입원'을 줄이는 효과, 병의 치료를 돕는 효과, 병을 예방하는 효과까지 있어 노인 본인은 물론이고 개별 가계와 사회의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다.

노인가구의 주거만족도는 5점 척도 3개 문항으로 측정하였으며, 평균 9.282점으로 주거에 대한 평가는 비교적 만족수준이 높게 나타났으나 개인적 편차가 매우 크다 <Table 4>. 전반적인 주택에 대한 만족과 주거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3.556점과 3.482점으로 비교적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주택시설설비의 편리성에 대한 만족도는 2.244점으로 매우 낮았으며, 노인가구의 개인적 특성이나 주택 특성에 따른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3) 노인가구의 개인적 특성과 주택 특성에 따른 주택시설설비결함의 수준

노인의 개인적특성과 주택특성에 따른 주택시설설비결함의 수준은 결함요소에 따라 차이를 보였으며, 노인가구의 사회경제적 수준과 주거환경적 특성에 따른 주택시설설비결함의 수준은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가구의 개인적 특성으로는 성별과 소득수준을 평균

Table 5-2. Housing Defect Level by Personal Factors-II

			lighting of living room, front door and entrance	Lack of kitchen storage space	Convenience in bathroom water usage	Slippiness of kitchen floor	Hot-water usage in bathroom
		N	M	M	M	M	M
Living type -Income	Living alone-below 170	93	2.65 A	3.62 A	2.57 A	1.98 A	1.97 A
	Living alone-above 171	15	1.53 B	1.53 B	1.53 B	1.53 AB	1.40 B
	Living with children-below 170	88	2.77 A	2.28 A	1.87 B	1.82 AB	1.67 AB
	Living with children-above 171	84	2.29 A	1.62 B	1.73 B	1.48 B	1.37 B
		F	4.920**	7.320***	9.515***	4.446**	5.458***
Sex- Living style	Female-living with children	87	2.61	1.76 AB	1.80 B	1.76 AB	1.66 AB
	Female-living alone	78	2.68	1.99 A	2.60 A	1.99 A	2.03 A
	Male-living with children	85	2.46	1.54 B	1.80 B	1.54 B	1.39 B
	Male-living alone	30	2.00	1.73 AB	1.97 B	1.73 AB	1.53 B
		F	N.S.	2.749*	7.791***	2.892*	5.542***
Income- House aging	Below 170-20 year	83	2.51 AB	2.05 B	2.00 A	1.58 BC	1.65 A
	Above 171-20 year	71	2.07 B	1.41 C	1.52 B	1.23 C	1.72 A
	Below 170-21 year	98	2.78 A	2.57 A	2.43 A	2.03 A	2.07 A
	Above 171-21 year	28	2.43 AB	2.11 B	2.14 A	1.75 AB	1.27 B
		F	5.085***	12.590***	7.915***	13.515***	9.257***
Income- House type	Below 170-detached house	137	2.71 A	2.34 A	2.38 A	1.85 A	1.91 A
	Above 171-detached house	47	2.32 AB	1.98 A	1.91 B	1.72 A	1.49 B
	Below 170-apartment	44	2.70 A	2.32 A	1.77 B	2.07 A	1.55 AB
	Above 171-apartment	52	2.04 B	1.27 B	1.50 B	1.27 B	1.27 B
		F	3.752**	10.167***	8.039***	6.592***	6.032***
House type -Sex	Detached house-female	106	2.76	2.45 A	2.52 A	2.01 A	2.03 A
	Apartment-female	59	2.42	1.81 B	1.58 B	1.61 B	1.47 B
	Detached house-male	78	2.40	1.96 B	1.91 B	1.55 B	1.50 B
	Apartment-male	37	2.22	1.65 B	1.70 B	1.68 AB	1.27 B
		F	N.S.	5.668***	10.004***	4.183**	7.936***
Income- Sex	Below 170-female	117	2.82 A	2.48 A	2.44 A	2.00 A	1.99 A
	Above 171-female	48	2.21 B	1.60 B	1.54 B	1.54 B	1.44 B
	Below 170-male	64	2.50 AB	2.06 AB	1.84 B	1.72 AB	1.52 B
	Above 171-male	51	2.14 B	1.61 B	1.84 B	1.43 B	1.31 B
		F	4.222**	8.892***	8.206***	5.256***	7.456***
House aging -Sex	Below 20 year-female	85	2.22 B	1.68 B	1.76 B	1.38 B	1.45 B
	Above 21 year-female	80	3.09 A	2.80 A	2.62 A	2.39 A	2.24 A
	Below 20 year-male	69	2.41 B	1.84 B	1.80 B	1.58 B	1.38 B
	Above 21 year-male	46	2.24 B	1.89 B	1.91 B	1.61 B	1.50 B
		F	7.236***	13.814***	9.001***	19.982***	12.919***

*p<.05 **p<.01 ***p<.001
N.S.; not significant

이상과 미만 집단으로 나누고, 자녀와 동거하는가의 여부에 따라 구분하였으며, 주택특성으로는 주택유형을 단독주택과 아파트로 구분하고, 주택건축경년이 20년 이하인 집단과 20년이 지난 집단으로 나누어 시설설비결합의 수준을 비교하였다<Table 5-1, 5-2>. 비교분석한 결과 차이가 없는 집단에 대한 분석결과는 표에서 제외시켰다.

주택시설설비결합의 요소중 화재탐지기 결합수준은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여성 노인이 3.92점으로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여성독거노인, 건축경년이 20년 이상된 주택에 거주하는 여성노인이었다. 바닥의 단차 결합은 소득이 낮고 건축경년이 20년 이상된 경우, 건축경년이 20년 이상된 주택에 거주하는 여성노인이었다.

욕실바닥의 미끄럼 결합은 건축경년이 20년이상된 주택에 거주하는 여성노인이 가장 심각하였다. 욕실동절기 사

용 결합 역시 건축경년이 20년 이상된 주택에 거주하는 여성노인이 가장 심각하였고, 다음으로는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여성노인이었다. 실내공간의 미끄럼 결합은 여성독거노인의 경우가 가장 심각하였으며, 다음으로는 소득수준이 낮은 여성노인이었다.

거실현관의 조명 결합은 건축경년이 20년 이상된 주택에 거주하는 여성노인이 가장 심각했으며, 다음으로는 저소득 여성 노인이었다. 부엌수납공간의 부족은 저소득 독거노인이 가장 심각하였으며, 다음으로는 건축경년이 20년 이상된 주택에 거주하는 여성노인이었다.

욕실의 수도전의 사용편리성에 대한 결합은 여성독거노인의 경우가 가장 결합수준이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소득수준이 낮은 독거노인의 경우였다.

부엌바닥의 미끄러움에 대한 결합은 건축경년이 20년

Table 6. Personal and Housing Characteristics Influencing Housing Defect

	B	β	B	β
Sex (male) ^D	3.921*	.167	3.611*	.136
Age	.607***	.242	.594***	.234
Education	.198	.093	.176	.034
Spouse (whether or not)	-1.216**	-.188	-1.156**	-.166
Income	-.019*	-.153	-.015*	-.147
Perceived economic status	-1.338***	-.307	-1.239***	-.201
Illness (health status)	.621	.089	.761	.092
Perceived health status	.943*	.198	.871*	.162
Housing types			3.336*	.131
Ownership of house			-9.316***	-.240
Scale of house (pyeong)			.015	.097
House aging			.119*	.145
Constant	14.178***		12.845***	
F-value	5.236***		7.932***	
R ² (Adj.R ²)	.227(.196)		.347(.306)	

Note. ^D: dummy variable
 *p<.05 **p<.01 ***p<.001

이상된 주택에 거주하는 여성노인이었으며, 다음으로는 소득수준이 낮고 아파트에 거주하는 경우였다. 욕실에서 온수사용에 대한 결함은 건축경년이 20년 이상된 주택에 거주하는 여성노인이 가장 심각했으며, 다음으로는 소득수준이 낮고 건축경년이 20년 이상된 경우였다. 이러한 결과는 천현숙, 오민준(2013), 장종익(2011) 등의 연구결과와 일치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주택시설설비결함의 수준이 가장 심각한 경우는 건축경년이 오래된 주택에 거주하는 독거노인 특히 여성 독거노인인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노인 중 이러한 경우에 해당되는 노인들을 위한 주택보장을 위한 주택개선 및 개조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4) 노인가구의 주택시설설비결함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특성과 주택 특성

노인가구의 주택시설설비결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Table 6>. 분석에 앞서 독립변수들간의 다중공선성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독립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하였으며, 독립변인들간의 다중공선성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 배우자유무, 종교유무, 주택유형, 주택소유 변인은 더미변수로 사용하였으며, 성별은 남자를 준거집단으로, 배우자유무는 배우자가 없는 집단을 준거집단으로, 주택유형은 공동주택(아파트)을 준거집단으로 주택소유는 임차인 경우를 준거집단으로 설정하였다. 주택시설설비결함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 중 1단계로 노인가구의 개인적 특성의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설명력은 19.6%였으며, 주관적 경제상태($\beta = -.307$)가 가장 영향력이 컸으며, 다음으로는 연령($\beta = .242$), 주관적 건강상태($\beta = .198$), 배우자유무($\beta = -.188$), 성별($\beta = .167$), 월평균 가계소득($\beta = -.153$)의 순으로 영향을 미쳤다. 경제상

태가 나쁠수록, 연령이 많을수록, 배우자가 없는 경우, 여성인 경우, 가계소득이 적을수록 주택시설설비결함의 수준이 심각해졌다. 교육수준과 질병보유는 의미있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단계로 주택 특성 요인을 독립변수로 추가하여 회귀분석한 결과 설명력은 30.6%였으며, 주택소유여부($\beta = -.240$)가 가장 영향력이 컸으며, 다음으로는 연령($\beta = .234$), 주관적 경제상태($\beta = -.201$), 배우자유무($\beta = -.166$), 주관적 건강상태($\beta = .162$), 월평균 가계소득($\beta = -.147$), 주택의 건축경년($\beta = .145$), 성별($\beta = .136$), 주택유형($\beta = .131$)의 순으로 영향을 미쳤다. 주택이 자기소유의 주택이 아닌 임대주택인 경우 주택시설설비결함의 점수가 9.316점 높았으며, 연령이 많을수록, 경제상태가 나쁠수록, 배우자가 없는 경우, 가계소득이 적을수록, 주택이 지은지 오래될수록, 여성인 경우, 단독주택의 경우 주택시설설비결함의 수준이 심각했다($p < .001$). 교육수준과 질병보유, 주택의 규모는 의미있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 소유의 주택이 없고, 경제적 여유가 없는 여성이면서 단독주택에 오래 거주한 노인일수록 주택시설설비결함이 많은 열악한 주거환경에 거주하고 있으나 개조나 수리를 하기에는 경제적 능력과 정보가 부족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주택보장의 측면에서 주거환경개선에 대한 지원이 요구됨을 알 수 있다.

5) 노인가구의 주거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특성, 주택 특성, 주택시설설비결함

주거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해 개인특성과 주택특성, 주택시설설비결함을 독립변수로 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Table 7>.

주거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 중 1단계로 노인가구의 개인적 특성의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설명력은 27.6%였으며, 주관적 경제상태($\beta = .432$)가 가장 영향력이 컸으며, 다음으로는 성별($\beta = -.341$), 연령($\beta = -.221$)의 순으로 영향을 미쳤다. 주관적으로 경제상태를 좋게 인지할수록, 남성인 경우, 연령이 적을수록 주거만족의 수준이 높아졌다.

2단계로 주택 특성 요인을 독립변수로 추가하여 회귀분석한 결과 설명력은 36.1%로 증가하였으며, 여전히 가장 영향력이 큰 요인은 주관적 경제상태($\beta = .401$)로, 다음으로는 성별($\beta = -.263$), 연령($\beta = -.206$), 주택의 규모($\beta = .197$), 주택소유($\beta = .184$), 주택의 건축경년($\beta = -.173$)의 순으로 영향을 미쳤다.

주관적 경제상태를 양호하다고 인지할수록, 남성인 경우, 연령이 적을수록, 주택의 규모가 클수록, 자기주택을 소유한 경우, 주택의 건축경년이 짧을수록 주거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p < .001$).

3단계로 주택시설설비결함 요인을 독립변수로 추가하여 회귀분석한 결과 설명력은 42.7%로 증가하였으며, 여전히 가장 영향력이 큰 요인은 주관적 경제상태($\beta = .387$)로, 다음으로는 성별($\beta = -.244$), 연령($\beta = -.191$), 욕실에서의 온수사용 결함($\beta = -.179$), 주택소유($\beta = .165$), 바닥의 단차 결

Table 7. Personal, Housing Characteristics, & Housing Defect Influencing Housing Satisfaction

		B	β	B	β	B	β
Personal	Sex(male) ^D	-1.252***	-.341	-1.062***	-.263	-1.042***	-.244
	Age	-.121***	-.221	-.082***	-.206	-.080**	-.191
	Education	.101	.095	-.085	-.101	-.065	-.093
	Spouse (whether or not)	-.541	-.010	-.418	-.006	-.401	-.005
	Income	.012	.002	.000	-.040	.000	-.032
	Perceived economic status	.413***	.432	.383***	.401	.365***	.387
	Illness (health status)	.070	.064	.003	.002	.000	.001
	Perceived health status	-.102	-.088	-.014	-.041	-.001	-.002
Housing	Housing types			-.398	-.095	-.387	-.086
	Ownership of house			1.938**	.184	1.585**	.165
	Scale of house(pyeong)			.045**	.197	.024	.097
	House aging			-.023**	-.173	-.011	-.089
Housing defect	Difference in floor level					-.255**	-.164
	Lighting of living room					.154	.088
	Fire detector					-.014	-.013
	Convenience of bathroom water usage					.007	.005
	Slipperiness of interior space					.122	.087
	Slipperiness of bathroom floor					-.101	-.074
	Bathroom usage in Winter					-.098	-.062
	Hot-water usage of bathroom					-.337**	-.179
	Slipperiness of kitchen					.124	.053
	Storage space of kitchen					-.266*	-.155
Constant		12.937***		10.062***		9.892***	
F-value		11.336***		13.123***		17.829***	
R ² (Adj.R ²)		.300(.276)		.391(.361)		.462(.427)	

Note. ^D: dummy variable

*p<.05 **p<.01 ***p<.001

함($\beta = -.164$), 부엌의 수납공간 부족($\beta = -.155$)의 순으로 영향을 미쳤다. 주관적 경제상태를 양호하다고 인지할수록, 남성인 경우, 연령이 적을수록, 욕실에서 온수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 자기주택을 소유한 경우, 바닥의 단차가 없는 경우, 부엌에 수납공간이 충분할 경우 주거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p < .001$). 주택시설설비결합 요인을 추가하여 분석한 결과 주택특성 중 주택의 규모나 건축경년이 주거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노인가구의 주거만족수준에 교육수준, 배우자유무, 월평균가계소득, 건강상태, 주택규모, 주택의 건축경년은 의미있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이면서 경제적 능력이 있고, 젊은 경우 주거에 대한 불만족을 해소할 수 있는 개조나 수리를 하거나 이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주거만족의 수준이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주택의 건축경년이 짧은 경우 이미 유니버설 디자인 등에 의해 양호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노인가구의 주거만족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주택시설설비결합요소들은 사용의 편리성이 더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예방차원의 설비결합인 화재탐지기의 부재나 욕실바닥의 미끄러움, 실내공간의 미끄러움 등 주택내 사고유발 가능성이 높아 시급히 개선이 요구되는 주택시설설비결합을 인식하

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로 생각된다.

여러 기존 연구들(김태현, 서성희, 1987; 이명신, 이훈구, 1997)에서 신체적 능력이 저하되고 집안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길어지는 노년기에는 주거환경의 영향이 매우 크며, 주거환경과 생활만족 사이의 긍정적인 관계를 시사하고 있다.

또한 건축년도가 오래될수록 실내공간과 출입구, 화장실에서의 노인의 사고발생률이 높았으며, 특히 대문이나 현관에서의 단차에 의한 사고발생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화장실에서의 미끄러짐이 가장 많았으므로 실내공간의 바닥 마감의 결함은 노인사고발생의 가장 큰 원인이 되므로(kwak, 2009) 이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 노력이 요망된다. 노인이 거주하는 주택시설설비의 결함 개선을 통해 주택내 사고발생이 감소할 수 있다면 사회적으로 의료 및 부양부담이 감소할 수 있으며, 노인 개인에게는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V. 결론 및 제언

노인집단은 다른 연령집단에 비해 매우 광범위하고 다양한 연령층, 경제적 수준, 건강상태, 가족구성의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어 일반적인 주거실태조사방법으로는 실효

성 있는 주거지원책이 마련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노인의 개인적 특성과 주거환경적 특성에 따라 현재 노인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주택시설설비결함은 어떤 것이며, 주택시설설비결함의 수준과 주거만족수준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현실성 있는 고령자 주거지원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인의 개인적 특성과 주택 특성에 따라 주택시설설비결함과 주거만족의 수준 차이와 주택시설설비결함과 주거만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요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조사 대상은 전북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노인 280명, 조사기간은 2011년 3-4월, 조사방법은 1대 1 면담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조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대상자의 성별은 여성이 약간 더 많았으며, 연령은 65세-85세 미만을 대상중 75세 이상이 가장 많았으며, 교육수준은 초등학교 졸업이 가장 많아, 교육수준이 도시지역의 노인보다 낮은 편이다. 배우자가 없는 경우는 절반보다 약간 많았다. 주관적 경제상태에 대한 인식은 자신을 중하류층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가장 높아 전반적으로 경제수준을 낮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가계소득은 169.2만원으로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보다 매우 낮은 수준이었으나 노인간 편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유형은 단독주택이 절반이 넘었으며, 이는 조사지역이 농촌지역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주택의 소유는 자가인 경우는 전국 평균과 유사한 분포를 보이고 있다. 주택의 규모는 평균 21.04평으로 비교적 넓은 편이었으며, 주택의 건축경년은 평균 23.15년으로 전북지역 노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 매우 노후함을 알 수 있다.

둘째, 주택에서 주택시설설비결함이 심각한 요소는 가스 및 화재 탐지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이었으며, 이는 화재와 같은 주택내 사고발생시 대처능력이 떨어지는 노인에게 위협한 환경임을 알 수 있다. 가장 결함이 낮은 요소는 욕실의 온수사용이었다. 다음으로는 현관이나 실내에서 1.5 cm 이상의 단차가 있는 것, 욕실 및 거실 바닥의 미끄러움으로 노인의 주택내 사고유발 가능성이 높다. 노인의 물리적 주거환경은 주택의 종류나 건축연도 등에 따라 매우 편차가 크며, 건축한지 오래된 주택의 경우 시설설비 수준이 낮을 뿐만 아니라 바닥의 단차, 미끄러움 등은 노인에게 매우 위협한 요소로 판단되며, 이에 대한 시급한 개선이 요망된다. 주택시설설비결함의 총합계는 평균 23.48점이었으나 편차가 매우 컸으며, 최근에 지어진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는 결함의 점수가 낮고 건축한지 오래된 단독주택의 경우는 주택시설설비결함의 수준이 매우 높았다. 주택시설설비결함의 수준이 가장 심각한 경우는 건축경년이 오래된 주택에 거주하는 여성독거노인이다.

셋째, 노인가구의 주거만족도는 평균 9.282(15점)점으로

주거에 대한 평가는 비교적 만족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전반적인 주택에 대한 만족과 주거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비교적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주택시설설비의 편리성에 대한 만족도는 2.244점으로 매우 낮았으며, 노인가구의 개인적 특성이나 주택 특성에 따른 편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주택시설설비결함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는 개인적 특성에서는 주관적 경제상태의 영향이 가장 컸으며, 주택 특성에서는 주택소유여부가 가장 영향력이 컸으며, 다음으로 연령과 주관적 경제상태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차 주택인 경우 주택시설설비결함 점수가 높았다. 연령이 많을수록, 주관적 경제상태를 나쁘게 인지할수록, 배우자가 있는 경우,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월평균 가계소득이 적을수록, 주택이 지은지 오래된 건축경년이 많을수록, 여성인 경우, 단독주택인 경우 주택시설설비결함의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노인 소유의 주택이 없고, 경제적 여유가 없는 여성이면서 단독주택에 오래 거주한 노인일수록 주택시설설비결함이 많은 열악한 주거환경에 거주하고 있으나 개조나 수리를 하기에는 경제적 능력과 정보가 부족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주택보장의 측면에서 주거환경개선에 대한 지원이 요구됨을 알 수 있다.

다섯째, 주거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변인으로는 주관적 경제상태가 가장 영향력이 컸으며, 경제상태를 양호하게 인지할수록 현재 거주하는 주택에 대한 만족의 수준이 높았다. 남성일 경우, 연령이 적을수록, 주택의 규모가 클수록, 자기소유의 주택인 경우, 주택의 건축경년이 짧을수록 주거만족의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2단계로 주택 특성 요인을 추가하여 회귀분석한 결과 가장 영향력이 큰 요인은 주관적 경제상태로, 다음으로는 성별, 연령, 주택의 규모, 주택소유, 주택의 건축경년의 순으로 영향을 미쳤다. 주관적 경제상태를 양호하다고 인지할수록, 남성인 경우, 연령이 적을수록, 주택의 규모가 클수록, 자기주택을 소유한 경우, 주택의 건축경년이 짧을수록 주거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3단계로 주택시설설비결함 요인을 독립변수로 추가하여 회귀분석한 결과 설명력은 42.7%로 증가하였으며, 여전히 가장 영향력이 큰 요인은 주관적 경제상태였으며, 주관적 경제상태를 양호하다고 인지할수록, 남성인 경우, 연령이 적을수록, 욕실에서 온수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 자기주택을 소유한 경우, 바닥의 단차가 없는 경우, 부엌에 수납공간이 충분할 경우 주거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주택시설설비결함 요인을 추가하여 분석한 결과 주택특성 중 주택의 규모나 건축경년이 주거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노인주거복지향상을 위한 다양한 대안의 모색이 요구된다. 주거환경의 개선이 신규주택에 치중하지 않고 기존의 주택에 대해서도 확대되어야 할 것이며, 노인부양 가구 위주가 아닌 현재 가장 많은 독거노인가구에 대한

지원으로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임차가구와 같은 경우 주거환경개선보다는 주거비의 부담을 완화시켜 줄 수 있는 주거비 지원 등과 같이 다양한 방법으로 노인주거환경의 질 향상을 모색해야 될 것이다.

둘째, 신체적 능력이 저하되고 주택내 생활시간이 길어지는 노인가구의 주택시설설비결합은 노인의 사고유발 가능성과 직결되므로, 사회적으로 의료 및 부양 부담의 감소를 위해서도 주택내 사고발생관련 결합요소에 대한 개선이 요망된다. 건축연도가 오래될수록 실내공간과 출입구, 화장실에서의 사고발생과 바닥의 단차에 의한 사고발생, 화장실에서의 미끄러짐 사고가 많아지므로 이들 결합요소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 노력이 요망된다. 노인가구 중 특히 여성 독거노인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 건축경년이 오래된 주택, 단독주택, 그리고 연령이 많은 노인들이 생활하고 있는 주택부터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노인이 거주하는 주택시설설비의 결합 개선을 통해 주택내 사고발생감소와 더불어, 노인의 삶의 질 향상도 기대할 수 있다.

셋째, 노인가구의 경우 가구유형별로 사회경제적 특성도 크게 달라 이를 반영하여 가구유형별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을 달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남성이면서 경제적 능력이 있고, 젊은 경우 주거에 대한 불만족을 해소할 수 있는 개조나 수리를 하거나 이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주거만족의 수준이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주택의 건축경년이 짧은 경우 이미 유니버설 디자인 등에 의해 안전한 주택시설설비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넷째, 노인가구의 주거만족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주택시설설비결합요소중 사용의 편리성이 더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예방차원의 설비결합인 화재탐지기의 부재나 욕실바닥의 미끄러움, 실내공간의 미끄러움 등 주택내 사고유발 가능성이 높아 시급히 개선이 요구되는 주택시설설비결합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로 생각된다. 따라서 노인의 주택내 사고발생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한 주택시설설비에 관련된 교육이나 홍보, 재난대처훈련 등을 통해 사고발생을 예방할 수 있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다섯째, 전북지역은 고령화율이 높아, 노인가가구가 많고, 단독주택이 차지하는 비율도 높다. 특히 읍면부의 노인 1인가구의 주거시설수준이 가장 열악하고 노후한 주택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지역적 차이를 고려한 노인가구에 대한 지역적으로 차별화된 상황에 맞춘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지원제도와 시행이 요망된다. 전북의 농어촌 지역의 경우 건축경년이 오래된 단독주택이 많으므로 이들 주택에 대한 안전진단후 개보수가 용이한 주택이나 경로당을 중심으로 안전한 주택시설설비를 갖추도록 지원하여 그 지역 노인들이 함께 기거할 수 있도록 하는 영국의 보호주택과 같은 방식도 고려해 볼 가치가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거택 서비스망을 이용하면서 관리인

과 경보장치가 있는 소규모의 집합주택으로 시설이 아닌 주택의 개념으로 접근한다면 노인들의 aging in place 욕구도 충족될 수 있으며, 안전한 환경의 제공이 가능하므로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REFERENCES

1. 강미나 · 김혜승 · 김태환(2009). 농촌가구의 주거실태와 시사점. 국토정책, 249, 1-6.
2. 국토연구원(2004). 고령화사회 노인주거문제와 정책대응과제 · II 고령화사회의 노인주거 정책과제. 국토정책, 77, 1-6.
3. 박신영(2008). 고령자 주거지원 방안. 주거, 3, 31-35.
4. 박신영(2011). 노인복지주택으로서의 준주택: 노인복지주택의 현황과 개선방안, 준주택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한국주거학회 제4회 학술세미나 발표자료집, 33-49.
5. 박신영(2002). 고령화 사회의 주택정책 방향. 국토, 254, 20-29.
6. 보건복지가족부(2008). 2008년도 노인실태 조사-전국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기초분석보고서. 서울: 발행처.
7. 송하승(2004). 고령화사회 노인 주거실태와 주거의식. 국토정책, 76, 20-31.
8. 윤주현 · 강미나 · 송하승(2004). 고령화사회 노인주거의 현황과 정책과제. 국토연구원 보고서.
9. 이경희 · 윤정숙 · 홍형욱(1994). 주거학개설. 서울: 문운당.
10. 이숙영(2011). 스웨덴의 노인을 위한 복지와 치유적 공간환경. 경기도: 이담.
11. 이연숙 · 이숙영 · 박정아 · 변혜령(1999). 한국노인의 주거만족도에 관한 연구. 생활과학논집, 13, 20-33.
12. 이주택(1994). 주거만족도 요인분석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 청구논문, 동국대학교, 서울.
13. 장종익(2011). 농어촌주택의 실태와 개량사업의 의의: 노인가구의 주거빈곤을 중심으로. 도시와 빈곤, 94, 60-73.
14. 천현숙 · 오민준(2013). 노인주거문제와 지원방안. 국토정책, 417, 1-6.
15. 최성재 · 장인협(2004). 노인복지학.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16. 한국소비자보호원(1998). 가정 내 노인 안전사고 실태조사.
17. 홍형욱 · 오혜경 · 주서령 · 지은영 · 홍이경 · 유병선(2006). 노후용 공동생활주택. 서울: 경희대학교 출판국.
18. Bang, J., Lee, C., & Oh, C. (2008). A study on the design guidelines of each room in housing for the elderly. *Journal of Digital Interaction Design*, 7(2), 100-112.
19. Cho, S. & Lee, T. (2005). Preference of Residential Environment According to the Situation of Old Age of Pre-Elderly. *Journal of the Korean Housing Association*, 16(4), 9-16.
20. Choi, M. (2000). A study on the analysis of housing environments of the elderly households and its suggestions in preparation for aging society. *Journal of the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planning & design*, 16(9), 29-38.
21. Hong, H. (1986). A preliminary study on the housing adjustment and adaptation-exploring the housing norms and dimensions of normative housing deficits-. *Journal of the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2(4), 61-73.
22. Jang, H. (2008). Factors affecting residential satisfaction and built environment evaluation by using them? focused on evaluation by sub-groups classified residents'

- characteristics on middle and small size apartment in Seoul-. *Journal of the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planning & design*, 24(5), 11-21.
23. Kang, C. (2009). A study of old person house policy research. *The Korea Institute of Electronic Communication and Information Sciences. Proceeding Autumn Conference*. 279-286.
 24. Kim, S. (2009). A study on factors to influence on the housing satisfaction of the elderly. *Social Welfare Policy*, 36(1), 117-142.
 25. Kim, S. (2009). A study on the housing need of the elderly. *Journal of Welfare for the Aged*, 43, 157-182.
 26. Kim, S. (2009). A study of analysis on the housing conditions of aged household in gangwondo. *Residention Environment Institute of Korea*, 7(2), 15-25.
 27. Kim, T., & Seo, S. (1987). A study of life satisfaction and housing environment among the elderly. *Journal of the Korea Gerontological Society*, 7, 77-92.
 28. Kwak, I. (1998). The perception of residential problems and satisfaction of korean elderly in urban area.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16(3), 95-110.
 29. Kwak, I., & Hong, S. (2009). Characteristics related to preferences on living arrangement and residence of the elderly. *Korean Family Resource Management Association*, 13(4), 17-38.
 30. Kwak, I. (2009). Characteristics related to domestic accidents of the elderly.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27(4), 55-66.
 31. Kwak, I. (2011). A study on the factors affecting decisions by the super-aged on their preference of living with their children and continuously living in their current houses. *Journal of Korean Housing Association*, 22(6), 83-95.
 32. Kwon, O. (2012). Present housing situations of the elderly and review of housing alternatives for their later life. *Financial planning Review*, 5(2), 67-85
 33. Lee, Y., Byun, H., & Oh, C. (1994). Environmental affordance for the elderly in three-generation family. *Journal of the Korea Gerontological Society*, 14(1), 154-163.
 34. Lee, D. (1998). Toward theoretical understandings of immigrant housing adjustment among koreans in the houston metropolitan area, *Journal of the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Planning & Design*, 14(10), 11-18.
 35. Lee, M., & Lee, J. (2010). A study on the choice of housing tenure and housing type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in elderly households. *Society of Design Convergence*, 24, 88-103.
 36. Lee, J., & Koh, B. (2012). A study on the determination factor of residential satisfaction in the apartment houses-focusing on jeonbuk area-. *Residention Environment Institute of Korea*, 10(3), 1-14.
 37. Lee, S. (2002). Life Satisfaction of Single Old Household in Residence Circumstances, Graduate School of Social Welfare, Daegu University, Daegu.
 38. Morris, E. & Winter, M. (1978). *Housing, Family, and Society*, N.Y.: John Wiley & Sons.
 39. Noh, Y., & Jang, J. (2009). A Study on the residential policy for the elderly in aging society. *Korean Real Estate Society*, 27(1), 197-220
 40. Park, S. (2011). Housing & life satisfaction of the elderly. *The Korean Association for Public Administration, 2011 Conference*, pp. 1-25.
 41. Park, S. (2011). Residential factors and life satisfaction of the elderly.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for Public Administration*, 23(3), 731-758.
 42. Shin, H., kim, S., Choi Y., & Ko, C. (2012). A study on usability evaluation through status analysis of the elderly housing environment, *Seoul Studies*, 13(4), 221-235. Seoul: The Seoul Institute,
 43. Shin, H., & Lee, J. (2008) A Study of Elderly residing support policy in advanced age society.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26(5), 15-25.
 44. Zimet, C., Dahelm, N., Zimet, S., & Gorden, F. (1988). The multidimensional scale of perceived social support.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52, 30-41.
 45. <http://www.kostat.go.kr/>

접수일(2013. 10. 25)
 게재확정일자(2013. 12. 11)